

특별세션

1

River & Culture



손 병 석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2014년 수자원 주요정책 방향

어느덧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행복”을 모토로 하여 다양한 수자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댐 사업절차 개선, 홍수 예보시스템 확충, 국토부·환경부 간 하천정비 협업체계 마련 등 주요 수자원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수자원 정책의 변화 속도는 더디게만 느껴지는 듯하다. 이에,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천력을 보다 높여가는 방향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행복의 기본이 되는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천-하수도-펌프장 등 치수시설을 연계하여 홍수대응능력을 높이는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14년 3개소 착수)하고, 작년에 계획수립을 완료한 계양천 유역(인천·김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재산이 밀집된 도시구간은 지방자치도 국가하천 수준(100년 빈도 설계)으로 정비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4기가 운영 중인 강우레이더는 금년 말까지 2기를 추가 설치(금산, 홍천)하는 등 ‘16년까지 전국에 12기를 건설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해 돌발호우 예측이 가능토록 하고, 강우량별 침수예상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홍수위험지도도 금강본류(한강·영산강·낙동강 기안료)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등 ‘15년까지 전국 5대강 유역에 홍수 지도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홍수와 관련 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앱 서비스도 제공(‘14.12)하여 돌발호우 예측, 긴급피난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둘째, 기존 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부족 걱정 없는 물복지 기반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용수공급 혜택을 여러 지역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기존 댐·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최적화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섬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14년도 2개소 착수)하여 물복지 사각지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 위주의 수자원 계획을 국가-대권역-시·도 단위로 체계화하고 건전한 물순환 촉진, 대체·보조 수자원개발·활용 등을 통해 댐, 하천, 빗물 등의 수자원을 유역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신규 법

령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마련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사전검토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댐 사업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댐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안심하고 물 마실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잦은 수질 사고가 있었던 낙동강 유역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 이전 및 수원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체에 건강한 물을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고 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금년 중 착수하고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갈수기 수시로 발생하는 녹조 등 수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류 가능량을 추가확보하고 댐·보 등 주요 지점 94개소에서 대한상시 모니터링도 주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하천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된 도심하천은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형하천으로 정비(14년 중 착공 12개소, 준공 32개소)하여 주민들의 문화·여가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 정비된 하천은 보전구역과 이용구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하천 이용구역은 오토캠핑 등 다양한 친수 레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 생태 및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하여 엄격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 하천관리기준을 개선(14.12)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수자원 관련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에 매진할 계획이다. 경인 아라뱃길은 활성화를 위해 한강·서해섬 운항 유람선을 확대하고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아라뱃길 운영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친수구역은 개발수요, 생태계,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14.4)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착공하고, 대전·부여·나주 지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개성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해 나갈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경북·대구)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 당사자 준비총회에서는 세계물위원회(WWC), UN, ADB 등 국내외 전문가 500여명이 경주에 모여 7차 물포럼의 핵심 내용을 논의하고, 본 행사 세션을 주관할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14년 말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교통·숙박·관광대책 등도 차질 없이(14.9) 준비하는 등 제7차 세계물포럼은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물의 날과 D-365일·D-200일·D-100일 기념행사, 가족대상 물 캠프,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 개최와 홍보대사 위촉(14.4) 등을 통해 세계물포럼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여 본 행사 개최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자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행복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수자원정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여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특히, 하천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물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자원 종사자들이 합심하고 협력할 것을 제언한다. 🌍

